

[ 사회 ]

# 닭·오리 소비 캠페인 '딜레마'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연일 닭·오리 소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광주지역 자치단체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는 닭·오리고기를 의외로 고민하고 있다.

"닭·오리 소비 캠페인을 따르자니 매상이 줄어들고, AI피해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닭·오리 메뉴를 유지해야 하고,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광주시내 한 공공기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2)씨 가 털어놓는 고민이다.

본지 취재팀이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닭·오리 등 가금류 메뉴 편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AI여과가 장기화되면서 상당수 구내식당이 닭·오리를 식단에서 제외하거나 횡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닭과 오리고기를 메뉴에 넣어도 공무원들이 먹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청 구내식당은 최근 닭·오리고기 식단을 전면 중단했다. AI

### 공공기관 구내식당 공무원들 먹기 꺼려 식단 빼고 횡수 줄여

파동 이전에는 한달에 평균 두세 차례 정도 닭·오리고기가 제공됐었다.

또 북부경찰서 구내식당도 한달 평균 서너 차례 가량 배식하던 닭·오리고기를 AI가 잠잠해질 때까지 식단에 넣지 않고 생선류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 반숙(半熟)으로 나가던 계란 후라이도 완전히 익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는 남부경찰서 구내식당도 닭·오리 대신 돼지고기나 생선류 등으로 식단을 다시 짰다. 광산경찰서 구내식당은 AI 여과 이후 해당 메뉴를 식단에서 뺐다.

관내에 '오리갈목'이 위치한 광주북구청은 지난 17일 구내식당 측에 닭·오리고기 소비축진을 위해 오리 요리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날 구내식당을 찾은

직원은 불과 30~40명에 불과했다. 식당측은 당초 식단에 짜여진 닭·오리 대신 갑작스레 오리 메뉴를 준비하는 바람에 식재료를 내다 버리는 등 이중 피해를 입기도 했다.

반면 광주시청이나 전남도청, 남구청, 농협 전남지역본부 등 닭·오리를 식단 메뉴에 포함시키도록 구내식당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식당 측도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정보(31·서구 농성동)씨는 "익혀서 먹으면 인체에 무해하다 해서 안심하고 먹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기피하던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내 모 구청 공무원은 "사람 심리는 다 똑같다. 언론에서 연일 AI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데, 공무원이라고 누가 닭·오리를 먹으려고 하겠느냐"며 "직원들 상당수가 돼지고기나 생선류, 채소류 등으로 식사메뉴를 바꾸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종현기자 glee@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고객 600만명 개인 정보 하나로텔레콤 불법 사용

고객정보 수천만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한 하나로텔레콤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고객 정보를 텔레콤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우(47)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이사는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0월 고객 김모(28)씨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텔레콤업체에 제공해 상품 판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2006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천500여만 건을 전국 1천여개 텔레콤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은 개인 정보를 불법 사용해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한 업무계약을 맺기도 했으며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 정보도 계속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국내 유명 통신업체도 가입자 정보를 카드회사나 보험사 등이 텔레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를 감독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준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연희뉴스

### 선선한 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광주	맑음	7~18℃
주요	맑음	8~17℃
여수	맑음	8~17℃
안동	맑음	7~18℃
대전	맑음	5~19℃
대구	맑음	6~18℃
부산	맑음	6~18℃
인천	맑음	5~19℃
전주	맑음	5~17℃
제주	맑음	6~17℃
울릉도	맑음	6~18℃
독도	맑음	5~18℃
제주	맑음	8~16℃

4월 24일 (음 3월 19일) ◇전국날씨

서울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만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남해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만바다=서~북서풍 파고 1.0~4.0m  
 목포 밀물 < 04:16 썰물 < 09:29  
 16:01 21:17  
 여수 밀물 < 10:45 썰물 < 04:58  
 23:24 16:41

▲해돋이 05:49 ▲해질 19:12 ▲달출 23:04 ▲달짐 07:40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날씨						
최저/최고	9/23	10/20	8/24	9/25	12/26	14/27



"긴장 조성 대북정책 안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6·15공동위 광주·전남본부' 등 광주·전남 지역 94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종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새 정부의 흥측, 정치적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대결과 긴장의 구도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정기자 jwvi@kwangju.co.kr

# 광주선 사이트 회원 15만명 정보 해킹

### 동부경찰, 30대 검거

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6년 12월에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K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 정보(여·24)씨 등 15만여명의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한씨는 지난 2003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해킹된 회원정보가 전화사기와 명의도용 등 2차 범행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고 사 용처를 조사중이다. /인현기자 ahj@

# 순천 선암사 동종 보물 지정

순천 선암사의 '순치14년명동종'(順治十四年銘銅鐘·사진·이하 선암사 동종)이 보물 제1561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23일 선암사 동종을 비롯해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제1559년)·도성도(都城圖·1560호),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五佛會 掛佛幀·제1562호) 등 4점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암사 동종은 조선시대 대표적 주종장(鑄鍾匠)인 김용암이 1657년 제작했다. 크기는 높이 82.3cm, 입지를 54cm로 크기는 작지만 정교해 김용

암이 만든 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수작으로 꼽힌다. 종의 정상부에는 하나의 여의주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이 장식됐고 정교한 보살입상이 새겨졌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은 고려 충숙왕(1336년) 때 김악(金岳)에 의뢰(銀泥)로 쓴사경(寫經)으로, 모두 7권 7첩이다. 도성도(18세기 중엽 제작 추정)는 도성(한양)의 전체 모습을 원형구도에 담고 있는 회화식 지도이다.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1745년)는 비로자나불·약사불의 묘사가 자연스러운 높은 격조의 불화이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 새마을금고 조합원 정보 유출 수사

광주시 동구 S 새마을금고에서 수천 명의 조합원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S 새마을금고 최모(51) 이사장이 "광주시 모 우체국 직원 J(39)씨가 내부직원과 공모해 조합원 3천1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갔다"며 J씨와 이금고 A 부이사장, S 부장 등 9명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께 우체국 직원 J씨가 광주시 동구청 직원을 사칭, 마을금고 내부로 들어와 직원 컴퓨터에 저장중이던 조합원 개인정보를 휴대용(USB) 저장장치에 담았다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최 이사장이 당선된 직후부터 기존 이사 9명과 마을을 빚어온 마을금고에서 최근 이사장이 '최 이사장 해임건의안' 등을 24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하면서 조합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마을금고는 이사장이 '금고 경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최 이사장의 해임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 이사장은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인현기자 ahj@kwangju.co.kr

# 1980년 '사북 사건' 국가가 사과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3일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 추진을 권고했다.

'사북 사건'이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탄광근로자들이 열한 노동환경에 항의해 벌인 파업이 경찰의 미숙한 대처로 대규모 폭력사태로 확대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했다.

사북사태 이후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은 광부와 주민들을 연행, 형의사실 자백을 강요하며 불교군,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했고, 임산부를 포함한 40~50명의 부녀자들을 조사하면서 옷을 벗긴 후 성적 가혹행위를 했고 이들에게 유산과 정신과 치료 등 고문 후유증 겪은 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희뉴스

44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 공인중개사

본원출신 전국수석

개강: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공인중개사 합격 시스템

- 56월 기본서 이론
- 7-8월 핵심요약정리
- 9-10월 최종문제풀이

주택관리사

56월 기본서 이론 개강: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전문 www.lankor.com

## 광주고시학원

직접인용 원본 교재발행 권역대정

본점 ☎ 227-8003 (구)도성 앞 전일빌딩 뒤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가장 안정된 직업, 늦었지만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상한연령까지=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행직, 교세직, 관세직, 감시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전직, 토목직, 건축직

※ 특별한 개원, 가평 주부님들을 대상으로한 09:30분 강의시작반 모집 ※

5월 9급 지방직대비

합격수강 회원모집

- 6개월 (총) 80만원
- 1년 (총)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개강 5월 1일 (주·애매요일) (현재입원중)

합격률 1위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 222-4560

## 주택관리사

★ 2010년 ★

### 의무채용

★실시확정★

## 4월 무료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11회

9월 7일 시험시행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옆) ☎ (062)222-6790, 232-1088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강사진!

개강 5월 1일 주야

합격률 1위 새롭행정고시학원

서울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북구점 ☎ 529-8111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안빌딩 옆 영철빌딩 6층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 생활안내 광고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